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새 AI치료제 '페라미비르 주' 국내 임상 3상 착수

녹십자(대표이사 허재회)는 아시아 다국가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인플루엔자 감염증 치료제 '페라미비르 주(Peramivir)'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시험을 시작한다고 지난해 12월 7일 밝혔다.

녹십자는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이번 임상에 대한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내 제약회사로는 처음이다.

일본 시오노기(Shionogi)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다국가 임상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에서 1,050명의 인플루엔자 감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임상에서는 '페라미비르 주'를 1회 정맥 투여했을 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타미플루'(독감치료제)를 5일간 경구 투여했을 때와 비교 평가한다.

녹십자는 지난 2006년 바이오크리스트사와 '페라미비르 주'에 대한 한국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임상 3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독감백신 'GC501'을 발매할 예정이며, 2010년 AI백

신의 최종품목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 헬스코리아뉴스



중국

중국 동부 장쑤성 AI 발생

중국 농업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장쑤성 하이안(海安)현과 동타이(東台)시에서 죽은 가금류로부터 HPAI인 H5N1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약 30km 떨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주변 지역의 가금류 37만7천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모든 가금류의 외부 유출을 금지시켰다.

이번에 발견된 인플루엔자는 중국 남부와 홍콩에서 발견된 인플루엔자와는 다른 것으로, 변종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야생조류들이 상업용으로 사육되던 가금류에 H5N1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전파에는 밀수 등 가금류와 가금류 가공품의 매매가 관련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 시기와 폐사된 조류 수는 밝히지 않았다.

- 헤럴드 경제



AI 감염 닭 외지판매 의혹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들거나 죽은 닭들이 살처분되지 않고 대량으로 외부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장쑤성 동타이(東台)시 싰창(三倉)진의 한 양계 농민은 외지에서 온 수집상들이 최근 농민들로부터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들거나 죽은 닭들을 한 마리에 6위안(1천200원)에 사들여 상하이(上海)와 산둥(山東)성으로 빼돌려 팔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대공보(大公報)가 지난해 12월 17일 보도했다.

동타이시 당국은 지난해 11월초부터 싰창진 등 일부 지역에서 AI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계농가로부터 병든 닭들을 한 마리당 10위안의 보상금을 주고 사들여 살처분하고 있으나 보상금 손질이 미치지 않는 벽촌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스위스

닭 90% 캄필로박터균에 감염

스위스에서 기르는 닭의 90%가 캄필로박터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해 12월 8일 스위스 연방수의청이 밝혔다. 캄필로박터 박테리아는 사람에게 전염되

며, 발열과 구역질,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연방수의청은 지난해 12월 18일 양계업자는 물론 식품 및 보건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마르셀 팔크 연방수의청 대변인은 “캄필로박터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것은 대부분 날 것이나 덜 익힌 닭고기를 먹을 경우이다”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EU

염소 항균처리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유지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염소 항균처리된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는 EU 집행위 제안을 거부했다.

EU 집행위는 미국-EU 경제협의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미국-EU 닭고기 분쟁을 해결하고자 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검토 의견을 거쳐 2008년 5월 염소 항균 처리된 미국산 닭고기를 식수로 행균 처리하고 동 내용을 라벨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끌어온 미국-EU간 닭고기 분쟁은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 유럽연합대표부